

NOROO

NOROO

AUTUMN · 2024

VOL. 72

NOROO

NOROO Quarterly Magazine

AUTUMN · 2024

VOL. 72

SPECIAL THEME
[열정], 가치를 올리다



SPECIAL THEME



[열정], 가치를 올리다

- 06

INTERVIEW

함께하는 열정은 더욱 뜨겁다
NOROO 탁구단
- 10

VIEWFINDER

장애인 탁구, 집중과 끈기의 스포츠

CULTURE GALLERY

- 14

COLOR SOUND

마음에 스미는 심리학적 원색 4가지
- 16

TRAVEL

투어패스로 알차게, 가볍게
- 18

HEALTH

건강과 함께 실속 있는 생활

26 . PAINT FOR ART 1



38 . COLORFUL SPACE



42 . SPECIAL STORE



NOROO PEOPLE



- 22

HIGH FIVE

새로운 에너지로 내일을 새롭게
2024 NOROO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
- 26

PAINT FOR ART 1

페인팅, 일무와 춤추다
노루페인트X세종문화회관, 한해동 작가의 페인팅 퍼포먼스
- 30

PAINT FOR ART 2

팝아트의 인상에서 이해로 이끄는 컬러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 WITH NOROO PAINT
- 34

PAINT FOR ART 3

그의 눈동자로 나를 보다
하비에르 카예하 <NO ART HERE> WITH NOROO PAINT
- 38

COLORFUL SPACE

달콤하게 채워진 컬러 하리보 해피월드
HARIBO HAPPY WORLD IN JEJU WITH NOROO PAINT
- 42

SPECIAL STORE

우리, 함께 지금, 여기
NOROO 같이가치 캠페인, 색다른 사진관 X 에스케이페인트
- 46

FOCUS ON NOROO

자동차 보수용 시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다
노루페인트, '모빌리티 특약점 차세대 경영자' 대상 세미나 개최
- 48

NEWS BRIEFING
- 51

QUIZ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 (주)노루홀딩스 인사지원팀 정석찬 차장

(주)노루페인트 디지털마케팅팀 박지현 대리

(주)노루오토코팅 경영기획팀 안세현 과장

(주)노루코일코팅 인사총무팀 추정민 주임
- (주)노루케미칼 업무지원팀 신성민 사원

(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 신성민 사원

(주)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김지안 주임

(주)기반테크 경영지원팀 김효원 대리
- (주)더기반 홍보디자인팀 김택수 차장

SPECIAL THEME

[열정], 가치를 올리다

무언가를 향해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두고 우리는 열정이라 한다. 한자로 ‘熱情’인 이 마음은 그야말로 불과 같아서 주변에 뜨거운 열기를 옮긴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의지를 굳게 세우고 시간을 쏟으며 실패를 무릅쓰고 나아가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의지 또한 달구어 함께 열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열정에서 열정으로 불붙는 마음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새기고, 각 존재의 가치를 고양할 수 있다.

함께하는 열정은 더욱 뜨겁다

지난 6월, 노루페인트의 첫 스포츠단, NOROO 탁구단이 출범했다. 노루페인트는 유망 장애인 탁구선수 5명과 고용계약을 맺고 6월 26일에 탁구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탁구단의 활약을 통해 불굴의 스포츠 정신을 전파하며 장애인의 사회 활동 또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NOROO인으로서 함께하는 탁구단의 뜨거운 열정은 미래를 향한 NOROO의 도전에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다.



희망과 용기를 받다

“안녕하세요. NOROO 탁구단 선수, 구혜정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교통사고로 휠체어 장애인이 되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재 탁구 선수로 열심히, 즐겁게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 최고가 되고 싶은 탁구 선수, 정연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표를 꿈꾸는 2005년생 청각장애 탁구 선수, 박하현입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내 장애인 탁구장에 NOROO 단복을 입은 선수들이 모였다. 휠체어 탁구 선수인 구혜정, 정연웅 선수와 청각장애 탁구 선수 박하현, 지적장애 탁구 선수인 박수호, 이수경 선수가 NOROO 탁구단의 단원들이다. 이중 부부인 구혜정 선수와 정연웅 선수는 나란히 입단했다. 부부가 탁구에 빠져든 것도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다.
“장애를 입은 후 먹고사는 일이 시급해 직장생활만 하다 보니 운동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는 분을 뵈러 가벼운 마음으로 탁구장에 들렀다가 장애인 탁구 선수들의 활기찬 모습에 저와 남편 모두 신세계를 경험했죠. 그 뒤로 퇴근 후 매일 탁구장에 달려갔고, 직장도 그만두고 아예 선수로 전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던 탁구였는데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꾸준히 정진하니, 성취감이 늘며 다음 단계를 향한 목표가 점점 생겼다고 한다. 옆에서 치열하게 운동하는 동료 선수들의 열정은 여기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어떤 결과를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혹은 저보다 장애가 심한 분들도 선수로서 열심히 활약하며 실력을 발휘하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았죠.” 구혜정 선수의 말에 이어 정연웅 선수는 “재미가 재능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다.”라고 웃어 보였다. “대회에 나가 입상하며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이다. 그가 느낀 것은 아마도 자신 안에서 발견한 꾸준함의 힘과 열정을 불태운 후의 짜릿함 아닐까?



열정, 불꽃으로 번지다

이제 19세인 청각장애 탁구 선수인 박하현 군의 시작은 조금 더 빨랐다. 박하현 선수는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라켓을 쥐었다가 바로 다음 해에 학생 체전에 나가서 은메달을 땀다. 그 후 각종 대회에 입상하며 경험과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박하현 선수는 다른 사람과 탁구에 대해 소통하고 기술을 나누는 때가 가장 즐겁다고 한다. 국가대표가 되어 내년 열리는 2025 도쿄 하계 데플림픽**에서 포디움에 서는 것을 가까운 목표로 삼고 있는 박하현 선수는 랭킹 1, 3위 선수도 꺾은 바 있는 실력으로 그 꿈에 차츰 가까워지는 중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NOROO 탁구단에 소속되어 박하현 선수는 더 큰 책임감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아플 땐 쉬기도 하던 학생이 아니니까요. ‘회사는 달라, 힘들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라고 제가 얘기하면 두말하지 않고 ‘그래!’하며 열심히 해요.”라고 어머니는 박하현 선수의 의젓한 모습을 전했다.



*박하현 선수와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사진 진행되었다.

**데플림픽(Deaflympics)은 청각장애인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국제경기대회로, 4년마다 열린다. 패럴림픽보다 훨씬 빠른 1926년부터 시작되었다.



NOROO 탁구단으로서의 책임감과 긍지는 모든 선수에게 큰 힘과 동기 부여가 되었다. “이렇게 큰 회사에 소속될 수 있다니, 처음엔 실감도 나지 않았다가 서서히 책임감이 커지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1기라서 더욱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우수한 선수가 되어 NOROO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라는 구혜정 선수의 소감은 다른 선수들도 동감하는 바이다. 노루페인트 인사팀 박은경 차장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경영진의 강한 의지에 따라 한 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추천을 의뢰하여 실력 있는 선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NOROO와 함께하며 탁구단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과정과 결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앞으로 NOROO는 더 많은 스포츠 분야로 지원을 확장하여 장애인 스포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내 탁구대회 등 이벤트 진행도 구상 중이다. 열정은 주변으로 번지는 힘이 세다. 구혜정 선수가 다른 선수들로부터 자극과 희망을 받았듯이, NOROO 탁구단의 열정은 NOROO 전체에 퍼져 도전을 향한 마음을 불꽃처럼 더더욱 피어나게 할 것이다. 다채로운 불꽃들로 모일 NOROO인들의 열정이 NOROO의 미래를 밝히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장애인 탁구, 집중과 끈기의 스포츠

장애인 탁구는 척수 손상을 입은 장애인들의 스포츠로 처음 소개되었으며 1960년 제1회 로마 패럴림픽에서부터 휠체어 등급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76년 토론토 패럴림픽에서는 스탠딩 등급이 추가되었다. 올림픽 탁구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된 것에 비하면 28년이나 앞선 긴 역사를 자랑하는 셈이다. 현재는 총 13개 등급에 따라 다양한 경기 방식으로 많은 선수가 경기를 뛰고 있다.

13개 등급의 장애인 탁구

장애인 탁구의 경우,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뇌성마비로 인한 지체장애를 통합하여 경기하되, 휠체어에 앉아서 경기하는 휠체어 5등급(1~5), 서서 경기하는 스탠딩 5등급(6~10)으로 구분하고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등급이 따로 있다. 경기 종목은 개인 단식, 개인 복식, 혼합 복식의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다. 경기 방법은 조별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시된다.

장애인 탁구의 특징

경기는 국제탁구연맹(ITTF)의 규정에 따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며 서비스 규칙은 국제 장애인탁구연맹(ITTC) 규정에 의한다. 휠체어 종목의 탁구대는 휠체어와 다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래쪽에 40cm의 공간이 있다. 시각장애인은 특수하게 제작된 소리 나는 공을 네트 아래로 넘겨야 하기에 네트 높이를 5cm 올리고 탁구대 끝과 옆은 3cm 높이로 프레임 설치한다. 휠체어 복식에서는 한 선수가 공을 여러 번 칠 수 있다. 공을 친 후 몸의 균형을 위해 테이블을 잡을 수 있지만 공을 칠 때는 테이블을 짚거나 잡는 등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장애인 탁구

한국의 장애인 탁구는 비장애인 탁구와 마찬가지로 세계 정상을 다투며 한국을 탁구 강국으로 세우고 있다. 최근 열린 파리 패럴림픽에서 탁구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 획득으로 참가 종목 중 가장 많은 메달을 가져왔다. 패럴림픽 통산 금메달 29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45개를 수확해 온 효자 종목이다. 이러한 성과는 두터운 선수 풀, 그리고 선수들의 재능과 열정을 지원하는 뒷받침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NOROO 탁구단의 결성이 선수 개인은 물론 한국 장애인 탁구의 발전에 힘을 보태길 응원한다.

NOROO 탁구단을 소개합니다



구혜정 선수

“탁구 옷을 입고 첫 단추를 끼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알차게 매진하다 보면 어느새가 정상에 올라 숨 한 번 고를 때가 오겠지요. 그 때까지 참고 참아 보렵니다. 가 보자~~고고!!”

수상 경력

- 2023년 제8회 서울특별시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동메달
- 2024년 제6회 경기도지사배 장애인 탁구대회 금메달



박수호 선수

“NOROO 입단식을 한 날은 제가 탁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의 환영을 받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탁구를 더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상 경력

- 2022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탁구 단체전 은메달, 복식 은메달



정연웅 선수

“본인의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즐겨서 얻는 건 재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여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정진할 것입니다!”

수상 경력

- 2024년 제9회 서울특별시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은메달
- 2024년 제6회 경기도지사배 장애인 탁구대회 금메달
- 2022년 제11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동메달



이수경 선수

“탁구를 시작하면서 전국체전도 나가고 메달도 뒀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노루페인트에 입사하며 자부심과 의욕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저 이수경은 더욱 노력하여 전국체전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노루페인트의 사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상 경력

- 2022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탁구 단체전 은메달
- 2023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탁구 단체전 은메달



박하현 선수

“목표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지치는 길을 인내하며 기대하던 결과를 얻을 때까지 언제나 웃음으로 활기차게 파이팅하려 합니다. 원하는 목표에 이르렀을 때 주위 이웃들과 탁구로 소통하며 말보다는 몸으로 사랑을 나누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수상 경력

- 2023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탁구 단체전 2위
- 2023년 제8회 서울특별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단식 2위



※ 자료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블로그,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홈페이지
※ 지면 관계상 수상 경력 중 일부만 올렸습니다



CULTURE GALLERY

서늘한 바람과 진하게 가라앉는 햇살이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라고 일러주는 듯한 가을입니다.
늘 다짐해도 미뤄지는 나만의 목표가 있다면 이 가을에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습관, 가벼운 여행, 무엇을 해도 좋은 가을 날씨가 도와줄 거예요.

마음에 스미는 심리학적 원색 4가지

체리, 라임, 레몬, 블루베리 등 맛과 향을 전하는 영상 속 이미지에 이어 이들이 지닌 빨강, 초록, 노랑, 파랑의 컬러는 활력과 긍정, 여유와 안정 등 감정의 파장으로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매우 자연스럽게 기분을 변화시킨다. <컬러 사운드> Satisfying ASMR은 컬러에 사운드를 더해 그 변화의 폭을 넓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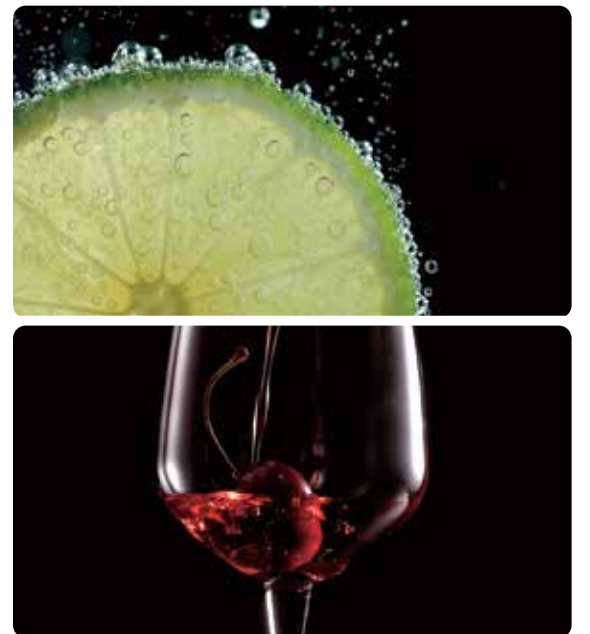
3분여의 휴식, <컬러 사운드>

우리의 감정은 많은 것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 오늘의 날씨, 주변의 말 한마디, 출근길 지하철의 밀집도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감정을 오르락내리락하도록 만든다. 밖으로부터의 자극을 완벽히 피할 방법은 없지만, 그를 상쇄시킬 자극을 스스로 만들 수는 있다. 내 감정을 고양해 주는 좋은 것들을 보고, 듣는

것. 향기를 맡거나 감촉을 느끼고, 맛보는 것. 한 마디로 오감을 활용하면 외부의 부정적 자극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오늘은 그중 청각과 시각을 이용해 느긋한 3분을 만들어 보자. 유튜브에 들어가 <페인트잇수다>에서 <컬러 사운드> Satisfying ASMR, 심리학적 원색(Psychological Primary) 4가지를 플레이하는 것이다.

4원색의 무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조명되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의 과일들은 제각각 가진 색을 화면 가득 선명히 드러낸다. 이어 포커싱된 레몬의 단면에서는 생명력이, 탄산수의 “싸아~”하는 소리와 기포 속에 잠긴 라임에서는 싱그러움이, 유리잔 속에서 쪼르륵 따라지는 와인의 세례를 받는 듯한 체리에서는 강렬한 유혹이, 바다를 담은 듯 파란 유리병에서는 시원함과 청량감이 느껴진다. 광원의 변화에 따라 유리컵의 그림자와 투과된 빛이 네 가지 색깔 위에서 어루미지며 지나가는 걸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의 컬러와 무드도 일렁이며 바뀌는 것 같다. 노란색이 지나갈 땐 밝은 햇빛이 다가왔다 멀어지며 하루가 가는 느낌이고, 파란색 배경에서는 심해에 잠겨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듯하다. 초록 배경에서는 진초록에서 연초록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숲속에서 잔디밭으로 나오는 것 같이 순식간에 공간감을 넓혀준다. 빨강 배경은 느껴지는 사운드와 함께 보여 더 깊어지는 내밀함을 느끼게 한다. 바로 연결되는 영상에서 천천히 비치는 유리 실린더 속의 투명한 파랑, 초록, 빨강, 노랑은 모여 있으면서도 각각의 개성을 영롱하게 빛내고, 뒤이어 물속에서 섞이면서 오묘한 컬러의 변화를 보여준다.



컬러로 셀프 힐링

컬러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주르륵 흐르는 페인트로 컬러의 매력을 진하게 전달하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컬러에 따라 변하는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가득 고여 아름다운 결을 이루었던 페인트는 다양한 소품에 페인팅 되어 컬러 고유의 힘을 재확인시켜 준다. 빨강이 메인인 테이블 디스플레이는 고혹적인 분위기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록으로 꾸며진 테이블에서는 나무 그늘 밑인 듯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따스함, 희망, 기대감이 놓인 노랑 테이블, 진중함과 명쾌함이 공존하는 파랑 테이블을 보며 오늘의 내 기분은 어느 컬러에 감응하는지 명상을 돕는 음악과 함께 집중해 보자. 분명 위로의 시간이 될 것이다.



SCAN ME

투어패스로 알차게, 가볍게

어디를 가도 좋을, 여행에 최적인 날씨를 제공하는 가을이다. 어디든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투어패스를 권한다. 투어패스란 정해진 시간 안에 한 지역의 유명 관광지, 식당, 카페, 기념품 가게 등의 다양한 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의 일종이다. 각각의 입장권이나 식음료를 따로 구입할 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해 주는 데다가 관광 명소를 종합한 알찬 구성이라 투어패스 하나로 여행 계획이 딱딱 세워지니 고효율 그 자체이다.



경기투어패스

가까운 경기도를 먼저 살살이 즐겨 보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출시한 경기투어패스는 경기도의 주요 관광 시설을 통합권 기준 14,900원으로 24시간, 19,900원으로 48시간, 26,900원에 72시간 동안(특가 기준)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이용권이다. 통합권 외에도 가평, 양평, 남양주, 하남의 동부권, 김포와 고양, 파주, 포천 등의 북부권, 광명과 부천, 시흥 등을 포함하는 서부권, 안성과 여주, 용인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을 따로 이용할 수 있는 권역권(48시간 기준)과 양평권, 가평권, 파주권(24시간 기준)의 지역권도 있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예시를 들면, 동부권을 구매했을 경우 가평양떼목장을 구경한 후 네니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구하우스 미술관을 관람하다가 카페 파울리에서 형겹 모빌을 만들고 불룸비스타 호텔의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가격적 혜택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각각의 체험이나 명소를 하나하나 검색할 필요 없이 투어패스의 이용 가능 리스트에서 골라 동선을 짤 수 있다는 점에서도 편리하다. 투어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여행지 및 업체를 보다 보면 여행 계획도 쉬워지기 때문에 나들이 겸 근교 여행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투어패스는 첫 사용 시각 기준으로 구매 옵션 시간만큼 이용 가능하며 동일 업체 중복 이용은 불가하다. 여행지 및 업체 정보, 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용하도록 한다.

제주투어패스

바다 건너 제주는 멀리 떠나는 여행의 기분을 가장 진하게 누릴 수 있는 국내 여행지이다. 멀리 가는 만큼 빠짐없이 구석구석 즐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그래서 제주투어패스는 종류도 보다 다양하다. 보편적인 제주투어패스는 약 90여 개 제주 관광지와 액티비티, 체험, 카페 등 제주 핫플레이스를 프리패스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업체는 1시간 간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없앤 패스도 있다. 제주투어패스 제로는 한 업체 이용 후 시간 간격 제한 없이 다음 업체를 이용할 수 있고, 제주타임패스도 제주투어패스에 없는 관광지와 카페 등을 이용 시간 간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댕댕투어패스는 반려견 동반 이용 가능한 여행지를 묶어 제공하며 제주살이를 하는 여행객을 위한 보름(15일)권도 있다.

투어패스 바코드를 구매하면 현재 위치 중심으로 가까운 여행지와 거리를 알 수 있으며 각 여행지 정보와 팁을 제공해 편리하다. 투어패스가 알려주는 제주의 히든플레이스도 쓸쓸한 꿀팁. 이용지에 따라 추가금이 있거나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제주에서의 시간도, 돈도 알뜰하게 사용해 보자. 구매자들의 리뷰를 보며 추천 여행지를 추려 보는 것도 루트를 짜는 데 유용할 것이다.

지역 곳곳, 투어패스로 간편하게

위에 소개한 경기, 제주 외에도 전북, 여수, 부산, 경북, 충남, 강릉 등등 지역별로 투어패스가 꼼꼼히 준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휴가철이 되면 특가 할인에 들어가기도 하니 앞으로의 여행 계획에 맞추어 미리 구매해 두는 것도 좋겠다. 여러 투어패스 중 놓치면 아쉬운 것들을 몇 개 더 소개해 본다.

안동영주 투어패스는 도산서원, 소수서원, 하회마을, 이육사문화관 등의 유적지와 체험관을 통해 한국의 유교문화를 느끼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코스를 제공한다. 특히 만휴정은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가을에 그 정취가 더 깊어지는 곳이다. 다양한 한옥 카페도 이용 가능하기에 서원에서의 감흥을 천천히 음미하기도 좋다. 충남투어패스 라이트권은 단돈 7,900원으로 정상가라면 134,000원(모두 이용 시의 가격 기준)일 총 90여 개 가맹점을 무료 이용하거나 할인 이용할 수 있다.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의 경우 정상 입장권 가격은 성인 기준 3,000원, 천안시티투어버스는 4,000원이다. 이 두 곳만 이용해도 7,000원인데 여기에 카페 세 곳의 아메리카노 제공에 특별할인가맹점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혜자 가격’인 셈.

이제는 명실공히 커피의 도시라 할 수 있는 강릉의 경우엔 카페를 줄 줄이 엮었다. 커피를 즐기 위해 강릉을 방문한다면 강릉N투어패스를 추천한다. 디캣웨이브, 아이즈로스터리, 346커피스토리 등 무려 17곳 카페의 아메리카노를 1시간 간격으로 이용 시간 내에 자유로이 맛볼 수 있어 가히 ‘커피투어패스’라 할 만하다.



건강과 함께 실속 있는 생활

건강이 제일이라고는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가장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게 건강이다. 조금 덜 걷는다고,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당장 손실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건강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 건강해지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반대로 좋은 생활 습관을 하나둘 쌓아가면 되니 말이다. 제도와 앱의 도움을 받아 당장의 이익을 확인하며 실천해 보자. 작은 실천으로 차곡차곡 모인 포인트는 실리와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줄 것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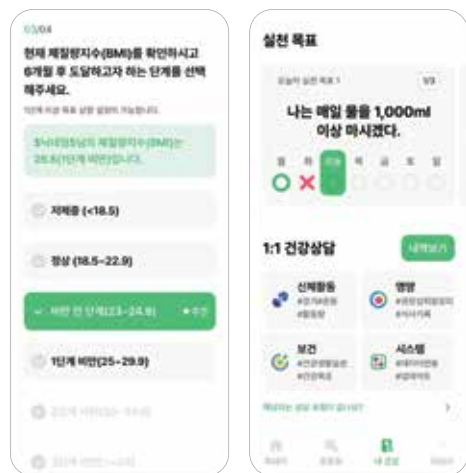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게 하여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사업이다. 건강 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되어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급받은 포인트는 물품이나 상품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예방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체질량지수 25.0kg/m²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자, 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로 각각 시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앱의 건강생활지원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예방형의 경우 걸음 수 앱과 연계하여 하루 5,000보 이상부터 50포인트~1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 건강 관리 프로그램 참여로 500~1,000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체중과 혈당 등의 개선으로 연간 15,000포인트까지 일시 적립도 가능하며 이렇게 모아서 2년 동안 총 12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관리형은 케어 플랜 수립과 걸음 수, 혈압 또는 혈당의 자가측정, 교육과 상담,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1년에 8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된 인터넷몰에서 백화점 상품권, 온누리전통시장 상품권, 복지포인트, 영화 티켓 등으로 전환해 사용 가능하다. 시범 지역과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건강도 차근차근, 돈이 되는 포인트도 차곡차곡 적립해 보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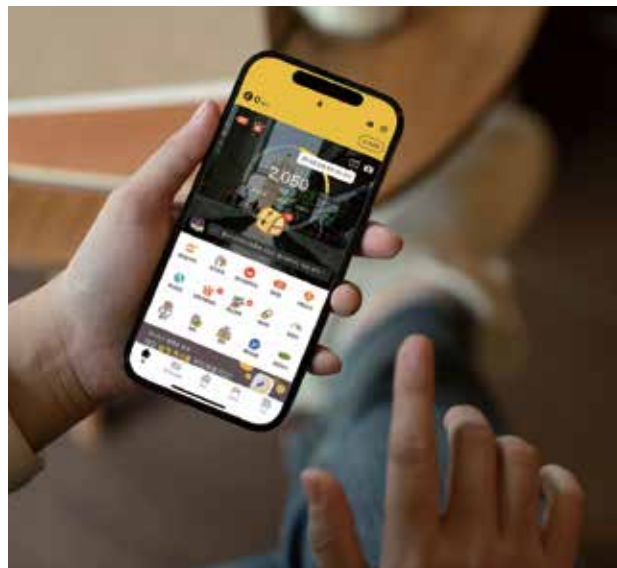
서울시민이라면 손목닥터9988도 추천한다.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모토로 전용 앱을 통해 건강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다. 1일 8,000보 걷기, 건강 목표 및 실천 목표 설정하기, 물 마시기, 식단 입력하기 등의 실천에 최대 10만 포인트를 제공하며 포인트는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돈이 되는 1만 보와 식단

정부나 지자체의 프로그램 외에도 건강을 돕는 다양한 앱들이 있다. 가장 많은 것이 걸음 수와 연계하여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만보기 앱은 캐시워크이다. 100걸음마다 생성되는 보석상자를 클릭하면 캐시가 적립되며 일일 최대 100캐시를 모을 수 있고 캐시가 1만 점이 넘어가면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구간마다 클릭을 해야 캐시가 적립되기 때문에 앱 접속을 자주 해야 한다. 머니워크도 비슷한 구조로 포인트를 얻어 현금화할 수 있다. 토스 앱에도 만보기 기능이 있어서 10보에 복권 1장에서 시작되어 1만 보에 총 4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포인트나 복권은 밤 12시 기준으로 캐시 클릭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걸음 수를 헛되이 날리지 않도록 각 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슈퍼워크도 1만 보를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비슷한 앱인데 보다 적은 클릭 수로 적립이 가능해 심플하다는 호평이다. 닥터캐시는 걸음 수 외에도 오늘의 건강 한 마디를 확인하거나 약 챙겨 먹기 등으로 포인트를 주고 이닛은 아침의 물 한 잔, 건강한 샐러드 한 끼, 매일 바디 체크,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등의 간단한 미션으로 네이버 페이나 스타벅스 쿠폰으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간단하고 즐거운 동기 부여가 된다.

식단 기록 및 관리 앱도 건강한 생활 습관 수립 및 유지에 도움을 준다. 밀리그램으로는 식사 사진과 칼로리, 운동량을 기록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룹을 지어 서로 응원할 수 있어서 목표 달성이 더 쉬워지는 것도 장점. 식단과 운동, 수면, 수분 섭취 등을 기록하면 에너지가 차오르는데 그걸 클릭하면 포인트로 적립되어 각종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다. 식사 인증샷이 남기에 좀 더 영양을 고려해 챙겨 먹게 되고 나중에 봤을 때도 기록의 보람이 시각적으로 크



게 와닿는다. 인아웃 어플도 같은 종류의 앱으로 다이어트 배틀 등에서 의지를 더 불태울 수 있어 좋다. 이외에 부가적으로 사용할 앱으로는 다이어트 카메라 시 어플을 추천한다. 이 어플은 음식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칼로리를 계산해 알려준다.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위의 앱들과 함께 사용하기 좋을 것이다.



NOROO PEOPLE

빛나는 내일을 만들 새로운 에너지, 역동의 아름다움을 담은 화폭,
즐거움 달콤함을 보여주는 컬러, 성공과 추억을 쌓아가는 삶,
NOROO는 이 모든 이야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내일을 새롭게

2024 NOROO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

2024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이 경기도 화성시 YBM 연수원에서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렸다. 2024년의 신규 입사자 4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그룹의 역사부터 공장 견학까지 아우르는 4박 5일의 일정으로 신규 입사자들이 NOROO의 근간과 문화를 이해하고 NOROO인의 자부심과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척척 착착 활기 가득

YBM 연수원의 한 강의실. 책상마다 조별로 6~7명씩 모여 앉은 참가자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강의를 경청하는 중이었다.

“여러분, 리더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리더가 더욱 리더다운, 확실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여러분께 이런 생각이 있으셔야 해요. ‘탁월한 팔로워는 결국 탁월한 리더가 된다!’ 나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현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열정 넘치는 목소리를 따라 참가자들은 고객을 끄덕였다. 교육 3일 차에 이루어진 이 강의는 ‘셀프 리더십과 팔로워십’으로, 그룹사와 노동조합, NOROO의 주요 제품을 소개하고 QES 교육을 진행한 첫날, 아이스 브레이킹 및 팀 빌딩, 비즈니스 매너와 신입사원 마인드 셋 교육으로 구성된 둘째 날에 이은 셋째 날의 프로그램이었다. 넷째 날에는 워크스마트와 보고 역량 강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핵심 가치 내재화와 비전 시티, NAC(화성)와 NRP(안양)의 공장 견학이 진행되었다. 4박 5일 일정의 딱 중간, 조금은 느슨해질 법도 한 이때의, 이 강의실에서 신규 입사자인 이들의 활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강의가 끝나고 잠시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에도 에너지는 여전했다. 꿀 같은 점심시간을 할애하는 촬영이니만큼 일사불란하게 줄을 나눠서고 화이팅, 볼하트 등 사진작가의 주문을 스피디하게 처리했다. 식사 후 계속된 조별 촬영 역시 척척이었다. 조별로 포즈를 정해 찍자는 즉석 제안에 바로 머리를 맞댄 자원들은 각각 하트, 찰칵 세레머니, 노루 뿔, 별 등의 창의력을 발휘했다. 아이디어를 내고 포즈를 연습하며 함께 웃던 순간들은 즐거운 추억으로 사진에 담겼다.

동기와 함께 내일로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은 활동도 역시 조별 활동이었다. 노루페인트 대전 지점의 오세욱 주임은 “아이스브레이킹 팀 빌딩 시간이 인상적이었어요. 인원 적은 지방에 있다가 교육을 통해 많은 분을 만나고 알게 되어 좋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노루페인트 수지연구팀의 오미진 대리 역시 “소통을 통해 다른 부서의 고민과 고충을 공유할 수 있어서 조별 활동이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라며 교육을 통해 무엇보다 ‘사람’을 얻어가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며 밝은 미소를 띠었다. 노루페인트 품질관리팀의 최지환 주임은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감으로써 NOROO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든 것 같아요. 나중에 서로에게 큰 자산이 되겠지요.”라며 속 깊은 대답을 하기도 했다.



노루페인트 대전 지점 오세욱 주임

“대전 지점의 오세욱입니다. 신규 거래처를 많이 개설해서 그 결실을 매출의 숫자로 이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수지연구팀 오미진 대리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어 기쁩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도 모두 다 같이 NOROO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며 함께 발전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효율적 업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강의들도 신규 입사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열어 주고 구체적 조언이 되었다. 노루코일코팅의 임소연 주임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NOROO인으로서의 마인드를 배웠다고 평했으며 노루오토코팅 재경팀의 박성호 대리는 비즈니스 예절에서 사소하게 놓치고 있던 부분을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실무에 더 꼼꼼히 적용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인터뷰 후 다시 교육장으로 돌아간 이들은 변함없는 집중력으로 강의에 다시 몰입했다. 외부 강사의 강의와 함께 경영진과의 식사, 공장 견학 등으로 신규 입사자들은 NOROO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NOROO인으로서의 마음과 태도를 되새기며 서로와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었다. 교육을 계기로 하나가 된 이들의 에너지는 새로운 NOROO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것이다.



노루페인트 품질관리팀 최지환 주임

“제 첫 사회생활을 노루페인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박 5일간 교육을 받으며 만난 동기들과 앞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오래오래 같이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노루코일코팅 임소연 주임

“교육에서 배웠던 것처럼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실천하면서 제 개인 역량과 함께 팀워크를 강화하고 성과를 내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루오토코팅 박성호 대리

“선배님들께서 오랜 시간 탄탄히 쌓아 올린 NOROO의 역사를 발판 삼아 저희들도 역량을 잘 펼쳐 보겠습니다. 기대와 함께 많은 기회 잘 부탁드립니다!”

페인팅, 일무와 춤추다

노루페인트X세종문화회관, 한해동 작가의 페인팅 퍼포먼스

노루페인트는 지난 5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 무용 공연 <일무>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한해동 작가의 페인팅으로 <일무>의 포토월을 만들고 공연 기간 세종문화회관에 전시하여 관객들에게 공연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제공했다. 한해동 작가가 그린 일무의 순간들은 공연의 감상을 추억으로, 사진의 배경으로 옮기게 해 주었다.



간결하되 강렬하게

공연을 이틀 앞둔 세종문화회관의 로비. 문을 걸어둔 대낮의 공연장은 드나드는 이 없이 조용했다. 그 적막함에 균열을 내는 것은 붓의 소리였다. 로비 한쪽에 놓인 커다란 벽체 위로 붓이 지나갈 때마다 공기가 갈라지고, 갈라진 틈으로 색이 고였다. 한해동 작가의 ‘일무’ 페인팅이었다.

노루페인트는 세종문화회관의 <일무> 공연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지난 3월 세종문화회관과 문화예술 분야 ESG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노루페인트는 친환경·시민참여·약자와의 동행에 뜻을 함께하여 관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연 기획 및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일무>를 공식 후원한 데 이어 순&수 오키버를 활용해 공연의 감상을 증폭하는 포토존으로써 아트월을 설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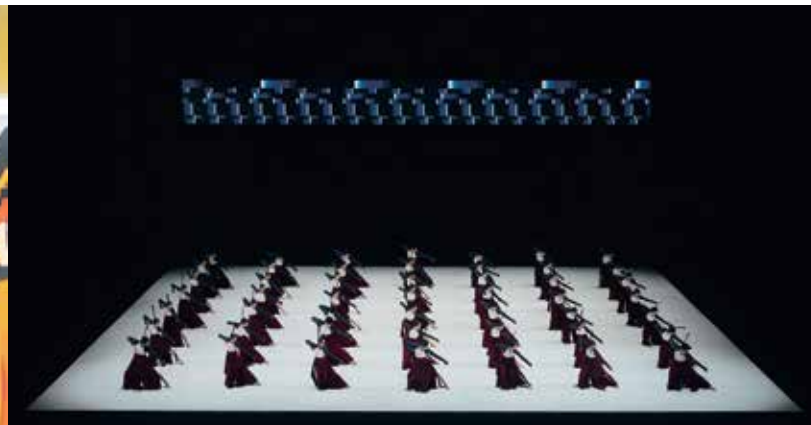
아트월의 페인팅을 맡은 한해동 작가는 그간 노루페인트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온 작가로, 최근에는 MBN의 미술작가 오디션 프로그램인 ‘화100’에 출연하여 TOP 7까지 올라가는 등 많은 사랑과 후원을 받았다.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흐르는 듯한 동세와 추상적 표현을 가미해 특유의 화풍을 만들어내는 그는 극한의 미니멀리즘으로 구성된 <일무>의 정수를 아트월에 옮기기 위해 “최대한 덜어내는 데” 의미를 두고 안무의 포인트를 간결하게 압축하여 임팩트 있는 작품을 완성해 냈다.



움직여 그림이 되다

“덜어내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무의 콘셉트를 아 니까 해내고 싶더라고요.” 한해동 작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작업 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그림을 비슷한 마음으로 그리지만 특히 이렇게 무용의 움직임을 담을 때는 동세의 표현을 더욱 생 각하게 돼요. 일단 화폭이 크다 보니 붓질할 때 몸동작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움직임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움직임과 에 너지가 넘치는 그림이라, 거침없이 빠르게 그려졌을 것 같지만 옆에서 지켜본 그의 동작은 멈춤과 기다림, 움직임의 반복이었 다. <일무>처럼 말이다.

철저히 고려하고 계산한 지점에 붓을 올리고, 굵고, 뚝다. 그 계 산의 결과물이 원하는 대로 나오도록 돕는 것이 순&수 울커버 이다. 노루페인트로 많은 작업을 해온 그는 이제 다른 재료만큼 익숙한 미술 재료가 페인트이다. “냄새도 없고, 발색도 좋고, 정 말 훌륭한 미술 재료예요.” 다시 팔을 크게 휘두르는 그의 등 뒤 로 <일무>를 연습하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한해동 작가의 몸 짓이 마치 춤처럼 보였다.



설렘과 추억을 담는 아트월

<일무>는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종묘제례 악의 의식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줄지어 추는 춤’이란 뜻의 ‘일무(佾舞)’에는 유교 정신과 예악사상이 담겨 있다. 정구 호의 연출과 정혜진, 김성훈, 김재덕의 안무로 2022년 탄생한 <일무>는 역동적인 칼군무, 절제미와 장엄함이 공존하는 압도적 미장센으로 작년 서울 재공연과 뉴욕 링컨센터 초청공연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열렬한 호평과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링컨센터 버전으로 준비되어 더욱 기대를 모은 이번 공연의 개막일. 한해동 작가의 완성작이 놓인 로비엔 사람들이 북적였다. 관람객들은 완성된 아트월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며 공연에 대한 설렘도 사진에 담 았다. “제 그림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던 한해 동 작가의 바람은 충분히 실현되는 중이었다. 세종문화회관의 <일무>의 정수는 그렇게 노루페인트의 컬러와 한해동 작가의 그림으로 그날 의 관람객들에게 더욱 오래 기억될 것이다.



팝아트의 인상에서 이해로 이끄는 컬러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 with NOROO PAINT

미국 팝아트의 거장 8인의 작품 190여 점을 선보이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이 지난 5월 1일 개막, 9월 18일까지 안녕인사동에
서 열렸다. 팝아트의 대표 주자인 로이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등을 시작으로 거장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에 노루페인트가 함께하
여 그 채도와 밀도를 높였다.



팝아트의 진수를 만나다

우리는 흔히 팝아트에 대해 만화 같은 그림체, 화려한 색, 상업 광고처럼 강
렬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당연한 연상이다. 팝아트는 대중 매체와 광고에서
가져온 이미지와 주제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미술이기 때문. 동시에 팝아
트는 미술 자체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폭넓은 스타일을
보여주고 사회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장르였다.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은 이처럼 그동안 전면에 드러나지 않던 팝아트의 여러 면
모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팝아트의 대표 주자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을 시작으로, 미국 팝아트의 기틀
을 다진 잭슨 폴록과 로버트 라우센버그, 영역을 넓히고 가능성을 밝혀간
로버트 인디애나, 제임스 로젠퀼스트 등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작가 소개 외
에도 시대 배경, 당시의 사회적 이슈, 작가들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팝
아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전시장 내의 모든 작품과 텍스트, 영상
을 감상한 후에는 분명, 팝아트에 대한 인상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 시작
부터 마지막까지, 노루페인트는 다채로운 컬러로 안내했다.





인상에서 이해로

팝아트 거장전은 끝나도, 전시는 끝나지 않는다. 방대한 컬렉션, 풍부한 해설로 팝아트의 역사와 의미, 과거와 현재를 훑아 보았던 대형 전시 <팝아트 거장전>은 현재 왕성히 활동 중인 한국 팝아트 작가 12인의 특별전으로 이어져 그 연결고리와 영향력을 확인케 했다. 여기서도 노루페인트는 순&수의 White 페인트로 전시장을 채우고 감상의 마무리를 도왔다.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4대륙을 수년에 걸쳐 여행할 ‘월드투어’ 전시의 첫 번째 개막지였던 서울에서, 관람객들은 세밀히 배치된 컬러를 따라가며 팝아트에 대해 ‘강렬한 인상’에서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전시는 큰 호평 속에 9월 18일 막을 내렸다.

컬러가 안내하는 전시

화가들의 흑백 초상 사진, 묵직한 블랙의 층고 높은 벽, 선명한 노랑 타이포그래피의 전시명으로 꾸며 압도적 명시성을 부여한 전시장 입구를 통과해 만나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전시 섹션은 화이트와 파랑의 대비로 시원한 해방감을 전한다. 상업 일러스트레이션과 만화의 미학을 캔버스에 적용한 리히텐슈타인의 화풍은 NOROO MD 6180 Periwinkle의 명징하고도 어딘가 장난스러운 파랑 속에서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시리즈 작품들은 NOROO MD 7103 Cold Yellow를 사선으로 배치한 컬러구성 속에 걸려, 그 의도대로 모아보게 된다. 앤디 워홀의 섹션은 NOROO BT 7027 Spicy Pink로 시작된다. <플라워> 시리즈의 꽃 색깔에서 가져온 듯한 이 핑크는 작품들과 어우러지면서 작가 특유의 인공적 향기를 진하게 뿜는다. NOROO BT Pinkish Pastel의 여린 핑크와 NOROO Black의 엄중한 블랙, 강렬한 실크스크린 작품들의 조합은 현대 미술의 아이콘인 앤디 워홀의 힘을 느끼게 했다.

이 전시의 주요 작가 네 명을 모아 비틀즈에 빗대어 <The FAB 4>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초상화가 맞이하는 다음 섹션은 노랑으로 꾸며진 제스퍼 존스와 NOROO VV 8033 Carrot Candy로 채워진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전시 공간이다. 이어서 로버트 인디애나 섹션의 NOROO BT 7208 Iris Punch, 짐 다인 코너의 NOROO BT 7090 Tulip Yellow, 18금을 위해 따로 방으로 꾸며진 톰 웨셀만 구역의 NOROO MD 6144 Diffuser Green까지, NOROO의 컬러는 각 구간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작가들의 개성과 미학을 부각함으로써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대규모 전시의 흐름을 집중도 높게 이끌어 주었다. 그 역할을 상기시키기라도 하듯, 마지막 코너의 포토존 앞 모니터에는 노루페인트 <컬러 사운드>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의 눈동자로 나를 보다

하비에르 카예하 <NO ART HERE> with NOROO PAINT

‘눈이 큰 소년’으로 잘 알려진 스페인의 작가 하비에르 카예하의 특별전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10월 27일까지 열린다. “이곳에 예술은 없다”라며 <NO ART HERE>라는 제목으로 직관적 관람을 권하는 이번 전시에서 노루페인트는 작품으로 확장되는 벽면을 다채로운 컬러로 채워 더욱 풍부한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눈망울 속에서 아이가 되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인지하곤 한다. 누군가가 의아하게 바라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라고 생각하며 매무새를 살피고, 반짝이는 눈빛이 오면 ‘나 오늘 좀 괜찮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눈빛으로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그래서 타인의 눈동자란 상당히 피곤하기도 한 법이다.

하비에르 카예하의 작품 속 눈동자는 그 정반대에 있다. 작가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크고 맑은 눈은 판단이나 편견 등 어떠한 함의도 없이 상대를 고스란히 담고 그대로 비춰낸다. 기이할 정도로 맑디맑은 눈망울을 물끄러미 보다 보면 마치 보는 이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은 흡입력이 느껴진다. 순수함과 강렬함의 공존 앞에서 관람객들은 일순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세 편안해지고 향수에 젖듯 작품과 동화될 것이다. 해맑은 동공 속에서 어른의 겉질은 점점 용해되어 사라지고 내면의 아이라는 알맹이만 남는 것 같달까. 그러한 감상 속에서 <NO ART HERE>라는 전시 제목을 떠올려 보면, 확실해진다. 여기에 예술은 없다. 어린이의 눈이 된 관람객 자신과, 친진한 그들만 있다.





순&수 올커버, 작품이 되다

“NO ART HERE”라는 팻말을 든 손이 쭈욱 나온 벽, 그러니 준비되었냐는 “ARE YOU READY?”의 메모가 붙은 첫 번째 방은 텅 비어 있지만 그 자체가 작품이다. NOROO WT 1008 Morning Air는 이 작품의 컬러로 전시의 시작을 함께한다. 이어 자유로이 쌓인 프레임들 속에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눈망울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방은 NOROO NU 3067 Alaskan Brown이 부드럽게 관람객을 이끈다. 프레임 안팎으로 동실동실 퍼지는 구름은 NOROO BT 7099 Daisy White가 크림미한 컬러로 환상적 느낌을 더하고, MD 5183 Alaskan Ice는 물기 머금은 하늘이 되어 구름을 띄워주었다. NU 4029 Thin Pink의 여린 분홍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에 대한 헌사로 제작된 작품들이 더욱 우아한 선물이 되도록 감싸주었으며 검은 고양이 설치 작품과 드로잉들이 자리한 마지막 섹션은 명량한 NOROO VV 8044 Sunnyday Bliss의 노랑이 작품이 가진 에너지에 시너지를 불어넣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대형 페인팅 10여 점을 포함해 대형 조각, 드로잉, 설치 미술 등 약 120점의 작품을 전시한 하비에르 최대 규모의 전시, 한국 관람객을 위해 작가 자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직접 설치하고 장식하고 연출한 이 전시에서 NOROO의 순&수 올커버는 선명한 컬러로 프레임 바깥의 작품을 담당해 주었다. 순&수 올커버의 컬러와 함께한 순수한 눈동자들을 마주해 보길 권한다. 맑고 어린 나를 만나는 기회가 될 테니 말이다.



작품의 공간까지 작품이다

1971년에 태어난 스페인 작가 하비에르 카예하는 체조 선수로 활동하다가 20대 중반에서야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 조부와 고조부가 예술가였던 집안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은 없다”며 기존 예술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관객 스스로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길 권한다. 작품 활동에 있어서도 그는 진정한 독창성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작품에 투영하는 것임을 체험과 구현으로 증명해 냈다. 활동 초기에 자신의 화풍이 일본의 네오 팝 아티스트 요시토모 나라와 비슷하다는 비평으로 위축되었을 때도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유일무이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작품을 꾸준히 다듬어 감으로써 그만의 정체성을 정립해 낸 것이다. 비좁은 화실에서 작업하느라 작은 작품을 해야 했던 때에는 “작품의 크기는 그 자체만의 크기는 아니다. 작품을 둘러싼 공간 역시 작품의 일부이다. 상상력의 크기만큼 작품이 커질 수 있다.”라며 공간의 한계도 깨뜨렸다. 프레임을 넘어 전시장의 벽면으로 작품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벽면까지 확장된 작품은 노루페인트의 순&수 올커버로 다채롭게 페인팅 되었다.



달콤하게 채워진 컬러 하리보 해피월드

HARIBO Happy World in Jeju with NOROO PAINT

보는 순간 그려지는 새콤달콤한 맛, 말랑말랑 쫄쫄득득한 식감, 독일에서 시작해 전 세계의 간식이 된 하리보 젤리. 언제까지나 입에 넣고 오물거리고 싶은 귀여운 젤리들의 세상, 하리보 해피월드가 제주에 문을 열었다. 노루페인트는 하리보의 컬러를 그대로 전시장에 옮겨 특유의 달콤함을 가득 채웠다.



행복을 주는 하리보

창립자 한스 리겔의 이름과 그의 고향인 독일 본(Bonn)의 앞 두 글자씩 가져와 이름 붙여진 하리보는 집 뒷마당에서 설탕 한 자루로 만들었던 사탕이 젤리로, 곰돌이 젤리인 골드베렌으로 변화하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하리보는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요. 어른들도요.”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하리보는 허끝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 아쉬운 건 금세 한 봉지를 ‘순삭’하게 되어 행복의 순간이 너무 짧다는 것.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하리보 해피월드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젤리섬에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린 하리보 해피월드 제주에서는 두 시간은 거뜬히 지속되는 하리보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컬러 가득 젤리섬으로의 초대

파란 벽을 배경으로 노란 골드베렌이 인사를 건네는 하리보 해피월드 입구는 마치 푸르른 제주 바다를 건너 도착한 초대장을 열고 들어가는 듯한 무드를 만든다. 맑고 선명한 파랑, NOROO VV 8103A Solitude와 축복의 햇살 같은 NOROO VV 8044 Sunnyday Bliss의 발랄한 노랑 벽면은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라고 인사하는 NOROO VV 8012 Tangerine Red의 빨강 젤리와 함께 젤리섬으로 가는 경쾌한 여행길을 이끈다.

첫 번째 코너는 하리보 100년 역사가 담긴 다양한 굿즈들로 꾸민 ‘하리보리안의 방’으로, NOROO BT 7093 Mineral Yellow의 부드러운 노랑이 하리보와의 길고 긴 추억을 풍부하게 되살려준다. 수집품이 놓인 책장 사이에서 시작되는 자이언트 컬러풀 로드를 지나 신비로운 야생젤리 보호구역에 도착하면 말랑말랑한 몸으로 “찰찰!” 소리를 내며 자연 속을 돌아다니는 젤리들의 하루를 보여주는 영상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영상의 낮과 밤이 잘 표현되도록 이곳에는 연한 그레이인 NOROO MC 2020A Moon Shade가 사용되었다.

진한 숲속 향기를 풍기는 듯한 진초록 NOROO MD 6126 Dark Peridot의 안내를 받아 도달한 하리보 비치타운에서는 상큼한 사우어 가루가 반짝반짝 빛나는 해변 옆으로 하리보 젤리의 다양한 맛과 모양, 질감, 역사 등을 알려주는 미디어 게임을 통해 젤리섬의 보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하리보를 대표하는 골드베렌의 실루엣과 노루페인트의 컬러로 구현된 컬러풀 트랙은 빠뜨릴 수 없는 인증샷 코너. 또한 하리보 100년사의 소개와 집무실이 있는 젤리 마올회관은 우드 톤의 전시 구성에 맞춰 NOROO WT 1053 Papyrus로 포근하고 차분하게 차별화되었다. 이어서 다양한 해양 젤리를 만나는 젤리 해저터널, 하리보 젤리 제작 공정을 체험해 보는 해피니스 프로덕션, 큰 창에 하리보 비즈를 빼곡히 붙여 스테인드글라스처럼 찬란한 빛을 만든 컬러풀 팔레트, 게임을 통해 우주로 하리보 젤리를 보내는 메가파티 스테이션 등을 체험하다 보면 눈깜짝할 새에 마지막 코너인 ‘안녕, 하리보 골드베어’에 도달하게 된다. 거대한 골드베렌의 배웅을 받고도 아쉬운 마음은 2층의 하리보 스토어에서 충분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젤리, 문구, 의류 등 엄청난 종류의 굿즈와 제주 한정 제품들이 하리보와의 추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해주니 말이다.



모두다 행복한 세계

하리보 젤리의 특징 중 하나는 새콤달콤한 맛을 시각적으로 전하는 컬러이다. 그렇기에 하리보의 대표 컬러들을 전시장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하리보 해피월드 담당자는 “저희 전시 특성상 알록달록한 컬러가 잘 표현되어야 했기에, 노루페인트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공간의 컬러를 최상으로 구현해 전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견인해내는 브랜드라 저희는 물론이고 제작사 측에서도 노루페인트와 함께하고 싶어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했지요.”라고 말했다. 특히 노랑의 경우, 발색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순&수 올커버는 노랑도, 빨강도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줬다고. “컬러도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가 원하는 색과 완벽히 매치되었고요.”라고 하며 담당자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노루페인트가 제공한 순&수 올커버의 선명한 컬러들로 하리보 특유의 명랑한 에너지를 전할 수 있었던 하리보 해피월드. 하리보의 맛을 눈으로 보고, 컬러로 만끽하고 싶다면 하리보 해피월드 젤리섬으로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 보자. 분명, 모두 다 행복해질 것이다.



하리보 해리월드는 전용 앱과 함께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AR 마커를 비추니 페인팅하는 골드베렌이 나타난다.



우리, 함께 지금, 여기

NOROO 같이가치 캠페인, 색다른 사진관 X 에스케이페인트

지리한 장마 기간 중 하늘이 맑게 갠 날이었다. 촬영이 이루어진 하얀 이층집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이어지던 실내도 이에 못지않았다. 에스케이페인트의 김백년 대표, 이순주 실장의 미소가 공간을 밝게 채웠기 때문이다. 사진작가의 포즈 요청에 어색해하는 두 사람이었지만 카메라와 서로를 향한 눈빛에는 색다른 경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일상 속 회상

“웨딩 촬영 후엔 처음이에요. 잘할 수 있을까 싶어 쉽게 결정하지 못했는데, 하길 정말 잘했어요. 변신해 보는 것도 신기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은 이순주 실장은 씩스럽게 웃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김백년 대표도 “오늘 참 좋았어요.”라며 깊고도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한 ‘색다른 사진관’이란 이날의 이벤트가 부부의 세월을 눈앞에 재생시켜 준 것일까. 두 사람의 시선은 처음 만난 23년 전으로, 그리고 페인트 매장에서 일을 시작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했다.



함께 나아간 길

“페인트 업으로의 권유를 받았지만, 먼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아내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직장 근무를 계속하며 2년 동안 토요일마다 페인트 매장에 나가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주말마다 집을 나서야 하는 남편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이순주 실장은 뒤를 묵묵히 지켰다. “마침 주5일제로 바뀌던 시점이라, 원래대로 토요일도 일한다고 생각하니 어렵진 않았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으니까요.”라고 말하는 이순주 실장이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사업성을 확인한 그는 퇴사 후 페인트 매장에서 본격적 경험을 쌓고 2014년, ‘에스케이페인트’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페인트 매장을 열었다. 그간 뒷배가 되어주던 이순주 실장도 일선에 나와 매장을 지키며 사업 파트너의 역할을 시작했다. 김 대표가 주력한 것은 수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환경부의 제재에 따라 유성에서 수성으로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준비했지요. 그러면서 노루페인트와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노루페인트의 기술력과 피드백, 자료 등이 타사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으니까요. 수입차 컬러 데이터도 더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거래선을 넓히기 위해 부부는 열심과 합심으로 노력했다. “현장의 작업 효율을 위해선 시편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밤 자정까지 조색하고 함께 시편을 만들었죠. 퇴근 후 씻으면 그날 만든 시편의 색깔이 물에 흘러나올 정도였어요.” 아이들도 시편에 라벨을 붙이며 부모를 도왔다. 매장을 담당한 이 실장 덕에 김 대표는 외부 영업에도 전력을 다할 수 있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될 때까지 10번이면 10번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길 10여 년, 가족이 함께 만든 시편은 든든한 자산으로 매장의 한쪽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자문하러 올 만큼 에스케이페인트는 수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대표적 매장이 되었다. 1곳이던 정비업체는 50~60곳으로, 50배 이상 늘었다. 부부는 이를 서로의 덕이라고, 그리고 노루페인트의 지원 덕분이라고 말한다.



더 빛날 내일

쉽지 않은 길이었다. 서로를 토닥이고 북돋워야 하는 날도 있었고, 그랬기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김백년 대표, 이순주 실장이 부부이자 동업자로서 함께해 온 세월과 노루페인트가 이들 부부와 동행해 온 시간은 지금의 여기에 굳건한 ‘우리’를 이루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노루페인트에 고맙습니다. 더 뒤돌아보고, 더 내다보는 오늘이었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위한 동반자로 함께 더 발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촬영을 마무리한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도 고마움과 사랑을 아낌없이 전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남아 내일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 노루페인트도 언제나처럼 함께할 것이다.



자동차 보수용 시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다

노루페인트, ‘모빌리티 특약점 차세대 경영자’ 대상 세미나 개최

노루페인트는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충북 단양의 리조트에서 <2024 모빌리티 특약점 차세대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자동차 보수용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을 돕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으며 차세대 경영자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한자리에 모인 차세대 경영자

자동차 보수용 도로 시장은 전기차, 자율주행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기술과 점점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환경 기준으로 인해 많은 변동을 겪고 있다. 자동차 보수용 도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모빌리티 특약점의 경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노루페인트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세대 경영자들을 위해 <2024 모빌리티 특약점 차세대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차세대 경영자는 1970~1980년대부터 자동차 보수용 도로 산업을 이끌어온 1세대의 뒤를 이어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젊은 경영자들로서,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루페인트는 달라지는 시장 상황 및 고객의 니즈에 빠르게 발맞춰 갈 수 있는 대리점 운영 방법과 경영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강의, 모빌리티 신제품 소개 등으로 알찬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1박 2일의 커리큘럼을 꼼꼼히 준비했다.



함께 미래 시장을 일구다

<2024 모빌리티 특약점 차세대 경영자 세미나>의 첫날은 외부에서 초청한 전문 강사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이날 강의는 고객 대응과 커뮤니케이션, 세무와 세법, 리더십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둘째 날에는 노루페인트 기술팀과 기획팀이 마이크를 잡고 노루페인트의 2024 모빌리티 주요 제품의 기능과 품질의 강점을 소개하였다. 실무자들은 신제품의 특징과 도장 방법을 교육해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자동차 보수용 시장 현황과 미래 비전 등을 설명하며 함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공유하였다.

강의 외에도 세미나에는 단합의 시간과 대화의 시간 등이 준비되어 차세대 경영자들은 타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특약점주들과 만남을 통해 경영을 하면서 느낀 고민과 노하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자리를 가졌다.

노루페인트는 차세대 경영자들과 자동차 보수용 도로 시장의 환경 변화를 함께 헤쳐 나가고 상호 매출 성장을 일궈내기 위해 이러한 세미나를 준비했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차세대 경영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본사와 특약점이 서로 발전해 나가자 합니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NEWS BRIEFING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국산화 개발사 최종 선정



업계 최초 'ISCC PLUS' 친환경 인증 획득, ESG 경영 실천



‘2024 하안지붕 설치 지원사업’ 참여



인천 랜드마크 상상플랫폼에서 대형 미디어아트 공개

(주)노루페인트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국산화 개발사 최종 선정

노루페인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의 개발사로 최종 선정돼 실란트 국산화에 착수한다. 시험·평가·인증 전문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경남테크노파크도 이번 사업의 실증을 위한 기반 구축 과제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200억 원 등 344억 원을 투입해 우주항공·방위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실란트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인증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루페인트는 올해부터 ‘연료탱크 보호 및 에어프레임 적용 가속환경부식 방지용 실란트 제품 개발’에 착수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 또 수요기업인 KAI(한국항공우주)와 연계해 기술 개발 및 실증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는 항공기의 제조·정비(MRO) 핵심 기능 소재로 연료탱크 누설 방지, 조종실·객실 압력 유지, 비행 중 부품 풀림 방지, 부품 접합면 기밀 유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극저온과 극고온 등 극한 환경의 반복 노출에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해야 하므로 일반 산업용 실란트 소재와 차별되는 최고 수준의 성능이 요구된다. 해외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제한되어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했기에 국내 수요 기업(KAI 등)들은

국산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상황이었다.

노루페인트가 개발하게 될 실란트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외에도 철도, 조선, 건설, 자동차,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NOROO의 기술력과 함께 한국 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최초 ‘ISCC PLUS’ 친환경 인증 획득, ESG 경영 실천

노루페인트는 지난 8월, 국내 페인트 업계 최초로 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PLUS’를 획득했다.

ISCC PLUS 인증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s)을 기준으로 원료 구입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저탄소 제품 생산 시스템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140여 개의 글로벌 원료 제조사와 연구기관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최대 8개월까지 소요되는 엄격한 검증 절차를 갖추어 공신력 있는 친환경 인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루페인트는 기존의 석유 기반 스티렌 대신 식물성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기반으로 생산된 스티렌(Styrene)을 활용하여 친환경 아크릴 페인트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검증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친환경 스티렌이 투입되어 만들어지는 모든 페인트의 생산 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인증을 통해 자원을 재사용하는 순환 경제 전환으로의 가속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CoC(관리 연속성)와 추적성을 바탕으로 공급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

노루페인트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국내 최초로 USDA 인증을 받은 바이오 페인트를 비롯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잇달아 발표하며 친환경 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폐자동차 앞 유리를 활용한 리사이클 도료를 선보인 이래, 올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시험·검사·인증기관 인터텍(Intertek)으로부터 ‘철강 리사이클 방청도료’ 재활용 소재 인증(Recycled Content Verification)을 획득하는 등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노루페인트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화학 기업의 위상을 위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제품 공급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ISCC PLUS 인증을 시작으로 노루페인트는 다양한 산업의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갈 계획이다.

‘2024 하안지붕 설치 지원사업’ 참여

노루페인트는 부산시와 부산건축사회가 주관하는 ‘2024 하안지붕 설치 지원사업’에 6년 연속 참여했다.

하안지붕 설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하안지붕(차열페인트)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민간협력 사업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도록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차열페인트는 칠한 곳 표면의 온도를 낮춰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을 돕고 냉방 에너지를 절감시키며 도시 열섬 현상까지 완화해 주어 환영 받고 있다. 노루페인트와 부산시는 2016년 화이트 루프 부산 시범사업을 인연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하안지붕 지원 사업을 함께했으며, 올해는 총 31개 현장을 순차적으로 시공할 예정이다.

사업에 사용되는 노루페인트 ‘에너지세이버 쿨루프(Energy Saver Cool Roof)’는 미국의 에너지 절감형 페인트 인증인 CRRC 인증을 획득한 고기능성 차열페인트로 적외선을 반사하는 흰색 특수 안료가 첨가되어 태양열이 닿는 표면온도와 실내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인천 랜드마크 상상플랫폼에서 대형 미디어아트 공개

노루페인트는 지난 8월, 인천 중구에 위치한 상상플랫폼에서 대형 미디어아트와 플로어 디자인을 공개했다.

상상플랫폼은 70년대에 인천항에 건립된 낡은 곡물창고를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자 인천의 대표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인천시가 리모델링한 복합문화시설이다. 인천역 근처

NEWS
BRIEFING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4> 3년 연속 공식 파트너 참가

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인천시의 새로운 도시재생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루페인트는 컬러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활용해 상상플랫폼 뮤지엄엘 1층 메인 라운지 공간을 차별화된 영상미와 힐링 사운드를 선사하는 시그니처 미디어아트와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연출했다. 메인 라운지에 설치된 높이 6미터의 초대형 키네틱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눈과 귀가 행복해지는 ‘컬러 사운드’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고, 라운지 플로어에는 페인팅과 바닷물의 물성에서 착안해 곡선을 강조한 패턴의 컬러풀한 포토존을 연출해 미디어아트와 함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 상상플랫폼과 함께하며 노루페인트의 컬러 기술력과 공간 기획력을 선보였다.”라고 하며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 상상플랫폼에서 수준 높은 콘텐츠를 관람하고 키네틱 디스플레이로 재생되는 노루페인트의 미디어아트를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4> 3년 연속 공식 파트너 참가

노루페인트는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 2024>에 공식 페어 파트너(Frieze Seoul 2024 Fair Partner)로 참가했다. 스위스 아트 바젤(Art Basel), 프랑스

피아(FIAC)과 함께 세계 3대 아트페어로 불리는 프리즈는 문화 예술 산업이 급성장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을 전략 국가로 선정하여, 2022년부터 한국에서 전시를 개최해 오고 있다.

노루페인트는 LG OLED, BMW 등과 함께 첫 개최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프리즈 서울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시장 도료 공급 파트너로도 함께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 프리즈 본사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전시 갤러리 선정 후원사로도 거듭 선정됐다. 최우수 전시 갤러리의 공식 명칭은 ‘Focus Asia Stand Prize, supported by NOROO’로 전문 큐레이터와 디렉터로 구성된 특별 심사위원단이 수상 갤러리를 선정하고, 후원사는 문화예술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로 구성되는 명예로운 자리다.

노루페인트는 행사 기간 중 방문객들이 NOROO의 독창적인 컬러 기술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대형 미디어월을 설치하고 밀라노 디자인 위크(MDW)에서 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현지에서 호평받았던 공간 아트 ‘홍철 원더랜드(Hongchul Wonderland)’ 영상 등을 상영했다. 노루페인트는 앞으로도 글로벌 컬러 전문 기업으로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적극 후원하여 전 세계 고객들에게 문화·예술적인 영감을 주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QUIZ!

2024 가을호 사보를 꼼꼼히 읽어주신 독자들에게 퀴즈를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아래 퀴즈의 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10분께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선물합니다!

TIP 답은 늘 사보 안에 있습니다!

Q

지난 6월, 노루페인트의 첫 스포츠단, NOROO 탁구단이 출범했습니다. 휠체어 탁구 선수 2명, 청각장애 탁구 선수 1명, 지적장애 탁구 선수 2명, 총 5명으로 구성된 NOROO 탁구단의 활약은 NOROO의 도전 정신과 불굴의 스포츠 정신을 전파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보기의 장애인 탁구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 ① 패럴림픽의 탁구는 올림픽의 탁구보다 일찍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 ② 파리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탁구는 가장 많은 메달을 한국에 가져왔다.
- ③ 청각장애인 올림픽인 데플림픽은 패럴림픽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11월 30일까지 chan@noroo.com으로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당첨 개별 연락을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의 제목은 ‘2024 가을호 사보 퀴즈 정답’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10분께는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선물 드립니다.

NOROO

NOROO 그룹 사보 | 통권 72호(비매품)

중별: 정보간행물(계간) 등록번호: 안양 바00022 등록연월일: 2019년 3월 15일 발행일: 2024년 10월 10일 발행처: (주)노루홀딩스
발행인: 강태준 편집인: 정석찬 기획 및 디자인: (주)리커뮤니케이션, (주)노루로지넷 사진: 마주스튜디오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발행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문의: 02-2191-7700